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풍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6월 12일 월요일 (음 5월 18일) 제182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폐막

축구 열기, 전주 넘어 세계로

평일에도 축구팬 2만7000여명 전주 찾아와
전주에서 열린 각종 문화행사에도 관광객들 몰려

전주시가 FIFA U-20 월드컵을 문화 월드컵으로 성공리에 치러내며 글로벌 문화도시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도시임을 입증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11일 결승전을 끝으로 막을 내린 이번 대회에서 개막 전 개최도시인 전주는 대회 기간 사실상 가장 많은 관중을 동원하고, 가장 축구열기가 뜨거웠던 도시로 FIFA 관계자 등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먼저, 지난달 20일 열린 개막전에는 전주시민들과 국내외 축구팬 등 3만7,500명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으며, 아르헨티나와 대한민국의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 역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2만7,000여 명의 축구팬이 찾으며 전주의 축구 열기를 실감케 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경기를 제외한 제3국간 경기에서도 전주는 많은 관중을 동원하며 이번 U-20 월드컵의 흥행을 이끌었다.
실제, 이번 대회의 조별리그 36경기 중 대한민국 대표팀의 3경기를 제외한 타 국가대표팀간 경기에서 관중 1만 명을 넘긴 경기는 총 4경기로, 이 가운데 3경기가 전주에서 열린 경기

다.
지난달 20일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경기에는 1만5,510명이 찾았으며, 28일 온두라스와 베트남 경기, 세네갈과 에콰도르의 경기에도 1만 명이 넘는 축구팬이 찾았다.
그 결과, 전주에서 열린 9경기에는 총 11만9,962명, 경기당 평균 1만3,329명의 관중이 찾아, 지난 2013년 터키 대회(5,832명)와 지난 2015년 뉴질랜드 대회(7,628명) 보다 평균 관중 수가 약 두 배 가량 높은 흥행을 거두기도 했다.
이처럼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뿐만 아니라 제3국간 경기에서도 선수들에게 열린 환호와 격려를 보내준 전주시민들의 수준 높은 관람 매너에 경기장을 찾은 해외 VIP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대회기간 중 전주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문화행사는 전주를 축구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도시로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전야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대규모 K-POP 공연에는 2만명이 넘는 관객이 몰려 전주 개막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

에서는 펼쳐진 전통연희 퍼레이드와 경기전 수문장 교대식 등 각종 전통 문화 행사들로 가득해 축구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전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도 큰 힘이 됐다.
특히 한옥마을 경기전의 경우 지난 5월 중 관람객 수가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2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이번 U-20 월드컵이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이번 FIFA U-20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 준공된 지 16년 된 전주월드컵경기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숙박과 교통, 위생 등 분야별로 꼼꼼히 점검하는 등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데 힘써왔다.
이번 전주월드컵경기장 개·보수를 통해 향후 프로축구 전북현대의 홈경기장을 찾는 전주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 속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라기 문화관광체육국장은 "FIFA U-20 월드컵은 막을 내렸지만 개막전 등 전주에서 열린 9경기를 통해 전주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처럼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칠 수 있게 된 원동력은 축구를 사랑 하는 전주시민들의 열정과 참여 덕분"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초등 교육 권한, 교육감에 이양해야”

국정기획위 “교육부, 지나치게 초등 교육에 간섭”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교육부의 초등 교육 권한을 가능하면 많이 교육감에게 이양해서 지역별로 교육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김갑원 연수원에서 열린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초등 교육에 지나치게 너무 많은 간섭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에 따라 교육 정책이 바뀌는 사태를 방지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교육위가 중장기적 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초·중·고 교육은 교육청이 담당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처로 축소된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이런 방향 속에서 교육감들께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성을 늘려가야 한다” 주문했다.
/뉴스1

문체부 2차관에 노태강 등 문 대통령, 차관급 5명 인선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해 좌천당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문체부 2차관에 임명하는 등 5명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노 차관 외에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용진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국토교통부 1차관에 손병석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또 차관급인 법제처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각각 김의숙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과 황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성을 늘려가야 한다” 주문했다.
/뉴스1



지난 10일 오후 4시 20분께 열린 '2017 전국청소년 마술경연대회'에서 김승근 청소년동아리전주시연맹 회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사진 왼쪽) 같은 날 오후 7시에 열린 '제4회 전국 품바왕 명인전'에서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 품바왕 명인전 성료

관광객 시선 붙잡은 한옥마을 주말 잔치

풍남문 광장에서 각각 개최 참가자들 열띤 무대 이어나 관람객들에 큰 호응 얻어
마술대회 대상에 나민우군 최우수상 이승주군 우수상에 장지웅군 수상
각설이 타령·불소 등 품바 명인들의 무대도 '눈길'

해운 만큼 실수하지 않고 같고 닮은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회 중간에는 통기타 듀엣 '레몬 트리'의 흥겨운 노래와 프로마술사 지혜준씨의 현란한 마술로 관객들의 흥을 더하기도 했다.
마술 끝나무렵의 치열한 경쟁 끝에 천안에서 온 나민우(Magic-j Ent, 중 3학년)군이 전북도지사상이 수여되는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천안에서 온 이승주(Magic-j Ent)군이 최우수상, 장지웅(Magic-j Ent)군이 우수상, 여수에서 온 서동현(개인)군이 장려상, 안양에서 온 이규진(개인)군이 특별상, 김태후(인천 대건고)군이 인기상을 각각 수상했다.
사단법인 전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시연맹이 주최하고 전주매일신문사가 주관한 '2017 전국청소년마술경연대회'는 전국각지에서 마술사의 꿈을 가진 참가자들의 대상을 향한 열띤 경쟁으로 뜨겁게 타올랐다.
이날 열린 마술대회에 다양한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김승근 청소년동아리전주시연맹 회장은 환영사에서 "마술에 꿈을 가진 청소년들이 매년 향상되는 실력으로 참석해주어 고맙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

서 품바명인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5명 품바명인들의 신명난 노래와 춤이 한옥마을 관광객들에게 흥겨움을 더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김승수 전주시장 이번 행사는 공중파 TV무대에서 유감없이 드러냈다. 이날 김승수 시장은 멘트 대신 노래로 화답했다.
관객 1,000여명 이상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공중파 TV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서정우 품바명인을 시작으로 각설이타령, 불소, 트로트, 만담 등 품바 명인들의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으며 막간을 이용해 인기 트로트 가수 박정식, 정혜진 등의 멋진 노래가객이 관객들의 흥을 돋구었다.
전주매일 조봉성 대표는 "제4회 전국 품바왕 명인전이 전북관광의 중심지인 전주한옥마을에서 열려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옥마을과 전통문화, 품바가 어우러져 멋지고도 즐거운 시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품바왕 명인전을 관람한 한 관광객은 "전주한옥마을이 지나친 상업화로 관광지가 아닌 먹자골목 인줄 알았다"며 "품바왕 명인전 같은 행사가 한옥마을에서 많이 치러져 볼거리가 많은 한옥마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라북도 전북농협

자연의 건강한 미소

예담채

예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